



창의와 청렴한 공직자 자세

정기연 전 영암 신북초등학교 교장

계묘(癸卯)년 새해가 되어 공직자의 인사이드가 있었으며 사무실 면모부터 새롭게 바뀌었다. 물리적인 사무실 면모가 새롭게 바뀐 것과 병행해서 공직자의 마음이 창의적(創意的)으로 새롭게 깨끗하게 청렴하게 시작되어야 한다.

청렴(淸廉)이란 공직자의 기본 자세로서 국민심서에 거론되었으며, 사전적 의미는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는 상태'이다.

이는 전통적으로 바랍직하고, 깨끗한 공직자상을 지칭하는 용어로 개인 수준에서의 도덕성의 초점에 두고 사용돼 왔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공직자로서 행하는 모든 행동은 어떤 형식으로든 개인과 사회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공직자는 과거를 혁신하여 바꾸고 시민과 열린 행정으로 소통하고 청렴한 마음으로 공무를 창의적으로 마무리 짓고 추진해야 한다.

청렴한 마음을 품고 업무를 추진하고 행동하는 공직자의 자세가 청렴한 공직자의 자세다.

목민심서(牧民心書)는 1818년(순조 18년)에 정약용이 지방관을 비롯한 관리의 올바른 마음가짐 및 몸가짐에 대해 기록한 행정지침서로 제목의 뜻은 목민관이 가져야 할 마음(牧民 心)이며 심서(心書)라 한 것은 목민할 마음은 있으나 몸소 실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방 관리들의 폐해를 없애고 지방 행정의 쇄신을 위해 옛 지방 관리들의 잘못된 사례를 들어 백성들을 다스리는 도리를 설명하였다. 목민심서에 '청렴은 목민관(牧民官)의 본무(本務)요, 모든 선(善)의 근원(源)이요, 덕의 바탕이니 청렴하지 않고서는 능히 목민관이 될 수 없다'는 구절이 있다.

청렴은 어느 시대나 목민관이 지켜야 할 최고의 덕목이자 가치관으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목민관이 임무를 수행하면서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으며 창의력을 발휘하여 이익을 창출해내는 것이 청렴이라고 강조했다.

정약용은 수원성을 건조하면서 거중기(擧重機)를 개발하여 창의적으로 막대한 예산 절감을 했으며 공사를 능률적으로 해 예산을 절감했다.

공직자인 목민관이 부정한 일을 하지 않아야 하며 무사안일의 자세를 벗어나 능률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추진에 전념해야 한다. 일을 미루고 핑계

를 대는 것은 청렴이 아니며 부정과 맥을 통한다.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없애고 김영란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부정과 청탁을 안 하는 것은 기본이고 창의력을 발휘해 업무추진의 능률과 예산 절감을 하게 하는 것이 청렴임을 공직자는 명심해야 한다.

공직자가 부정을 안 했으니가 청렴이 아니라 업무에 태만하고 업무를 지연하여 손실을 주는 것도 막대한 손실을 주었으므로 청렴에 위반된다. 공직자가 업무추진을 하면서 물건을 구입하고 공사를 추진하는데 입찰에 의해 구입하고 공사를 추진하니까 청렴이 아니라 창의력을 발휘한 입찰의 추진이야 청렴이다. 부정부패는 입찰 과정과 추진에 있기 때문이다.

목민관인 공직자는 우리 사회에 굵은 곳을 빠르게 퍼서 울퉁게 해 다시는 굽어지지 않게 하고, 막힌 곳을 뚫어서 시원하게 소통시켜야 한다. 공직자는 창의력을 발휘해 바르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 책무가 있다. 우리 사회는 공직자에게 고도의 도덕성을 요구한다. 청렴해야 위업을 세울 수 있고 창의적으로 성실해야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다.

공직자가 이제까지 살아온 지난 세월의 삶도 소중하지만, 오늘 이후 정년 때까지 국가 발전에 기여한 후 명예롭게 정년퇴직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다. 어떻게 하면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고 추진해야 하며 공직자가 현실에 안주한 채 나쁜 관행을 버리지 못하면 국가 사회는 발전할 수 없다. 역사적으로 국가 사회를 발전시킨 인물들은 나쁜 관행을 버렸고 낡은 틀을 깨고 창의적으로 새로운 길을 갔다.

지난날 목민되던 관행이 지금은 범죄가 되는 세상이다. 훌륭한 공직자는 깨끗하고 공정사회 구현에 앞장선다. 나 혼자 깨끗하고 청렴한 시대는 지났다. 모두가 깨끗해야 밝은 미래가 있듯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청렴했노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그 길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자 내가 갈 길이다.

다산은 유배에서도 지방행정을 쇄신하고 만백성이 윤택하고 조선을 새롭게 개혁하려 했던 꿈을 「목민심서」로 저술 제시했는데, 새해를 맞이한 공직자들은 목민심서에 수록된 공직자의 기본 자세인 창의와 청렴을 품고 실천했으면 한다.

칼럼

설 명절 선물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로

최기정 강진소방서장



우리 겨레 최대 명절인 설이 다가오고 있다. 설 연휴를 보내기 위해 가족 친지들과 함께하는 고향 가는 길 부모님 선물은 준비하셨나요. 선물준비를 위해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이번 설에는 조금은 특별하면서도 부모님 댁 안전을 위해 추천하고 싶은 것이 있다. 그건 바로 주택화재 발생 시 초기 화재진압 및 대피를 위해 필수적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이다.

설 명절이 다가오면서 매스컴을 통해 들려오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소식은 안타까울 때가 많다. 부주의로 인한 작은 불꽃은 소중한 가족의 보금자리를 모두 태워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주택화재로부터 가족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하는 어느것보다 안전을 위해 중요한 소방시설이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19~2022) 전국 화재 발생 150,347건 중 주택화재만 39,068건이며, 그 화재 속에서 686명이 사망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3년간(2019~2022) 전라남도의 총 화재건수는 10,225건이며, 그중 주택화재는 1,904건이고 55명이나 사망하였다. 이러한 사례를 보면 화재 중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결코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주택화재를 예방하고, 초기화재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소방시설이 앞서말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이다. 소화기는 초기화재 발생 시 소방차 1대보다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이다. 특히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인명구조와 초기진압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시간임을 감안하면, 소방관서와 멀리 떨어진 농어촌마을의 경우 소화기 비치와 사용법 숙지는 필수적이다.

또한,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연기를 감지하여 자체 음향장치로 경보음을 울려 신속한 대피를 가능하게 한다. 이미 미국에서는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후로 주택화재 사망자가 절반 가까이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러한 작은 소방시설로 일상생활을 더욱 안전하게 영위할 수 있다면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야 할 것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인터넷이나 소방기구판매점, 대형마트 등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으니 이번 설에는 부모님과 친지들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이라는 "안전"을 선물해 여러분들의 소중한 가족, 이웃과 함께 안전을 나누는 행복한 명절이 되길 기대한다.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이주여성긴급전화	1577-1366	▲법률구조상담	132
▲응급질병상담	1399	▲인광알고올상담센터	222-5666
▲여성 긴급전화	1366	▲광주 남성의전화	673-9001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388	▲광주 여성의전화	363-7739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수도 고장신고	121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전기 고장신고	123
▲응급의료센터	1399	▲가스사고 신고	383-0019

외부 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호남신문 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 서구 운천로 213 스카이랜드 309호

발행인·편집인 **최기현**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선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총효로 63 가동 2호 (061) 905-2011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적용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mpn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기고

나도 모르게 당하는 보이스피싱 다시 한번 의심해보자

허진 여수경찰서 여문파출소 순경



최근 전화금융사기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저금리 대출이나 대출금 상환을 목적으로 계좌이체를 요구하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금전을 요구하는 등 심지어는 문자 메시지로 자녀를 사칭하여 전자기기가 고장 났다며 부모들에게 연락을 취하여 수리비를 요구하는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나열한 수법 외에도 계속해서 범죄방식은 새로워지고 있으며 적은 금액부터 큰 금액까지 피해가 커지고 있다. 또한 이러한 사기 범죄에 당한 피해자의 연령대가 젊은 20대, 30대에게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 신고통계에 따르면 2만여 건 중 20대와 30대의 젊은 층의 비율은 60%로 높게 나타났다.

전보다 사회적으로 경각심이 높아졌고 경찰과 금융기관이 힘을 합쳐 홍보도 하고 있지만, 여전히 피해자는 증가하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보면 "나도 모르게 속아 넘어갔다"라며 속았다는 사실에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는데 중요한 것은 경찰, 검찰, 은행 등 어떤 정부 금융기관도 신분증이나 신용카드 사본 등 개인정보를 당사자에게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유념하고 또 유념하는 것이다.

만약 비슷한 내용의 전화가 걸려오면 의심부터 해야 하고, 돈을 송금했다면 신속히 금융감독원(1332), 경찰(112)로 신고를 하고 계좌 지급정지 신청을 하자.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